

# ‘올러 7이닝 무실점’ KIA, NC 꺾고 4연패 탈출



### 홈 개막 3연전 마지막서 3-0...3피안타 5탈삼진 쿼투 정현창 프로 데뷔 첫 타점...“타격 상승 사이클 기대”

KIA타이거즈가 홈 개막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4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KIA는 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NC다이노스와의 홈 개막 3차전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앞서 NC에게 지난 3일 2-5 패, 4일 0-6패를 당했던 KIA는 이날 승리로 개막 3연전을 1승 2패로 마감했다. 또 4연패를 벗어나는데도 성공했다. 그 결과 2승 6패 승률 0.250을 기록, 리그 10위 자리를 유지했다.

이날 KIA는 박재현(우익수)-박상준(1루수)-김도영(3루수)-카스트로(좌익수)-김선빈(지명타자)-한준수(포수)-김호령(중견수)-정현창(2루수)-데일(유격수) 순으로 타선을 짰다.

선발투수로는 아담 올러가 나섰다. 총 92개의 공을 던진 그는 7이닝 3피안타 5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쳤다. 페스트볼 최고 구속은 153km였다.

올러는 1회초 상대 선두타자를 뜬공으로 처리했다. 후속타자 박민우와 데이비스 역시 모두 뜬공으로 잡아내면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들었다.

2회초 역시 삼진 2개와 땅볼 1개로 세 타석 만에 이닝을 마무리 지었다.

KIA는 2회말 선취점을 뽑아냈다. 선두타자 카스트로가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를 때려냈다. 이어 김선빈이 땅볼로 물러났고, 그 사이 카스트로는 2루에 안착했다. 한준수가 볼넷으로 출루한 뒤에는 김호령이 우전 안타를 터트렸다. 1사 만루 찬스에서는 정현창이 땅볼을 기록했고, 김호령이 아웃되는 사이 카스트로가 홈플레이트를 밟았다. 이로써 정현창은 프로 데뷔 첫 타점을 만들었다.

올러는 3회초 땅볼 3개로 빠르게 이닝을 끝냈다. 4회초에는 안타 1개를 내줬으나 범타 3개로 아웃카운트를 모두 채웠다.

4회말 KIA의 추가점이 터졌다. 선두타자 김도영이 좌전 안타를 때려냈다. 카스트로 삼진 이후에는 김선빈이 좌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안타를 만들었다. 1사 1·3루 타석에 오른 한준수는 희생플라이를 기록했고, 김도영이 홈에 들어왔다. 경기는 2-0이 됐다.

5회초 뜬공 3개로 다시 삼자범퇴 이닝을 만든 올러는 6회초 또한 실점 없이 이닝을 막았다.

7회초에는 땅볼과 삼진으로 아웃카운트 2개를 빠르게 올렸다. 이후 포일로 이우성을 내보냈으나 뜬공으로 남은 카운트를 채웠다.

KIA는 8회초 올러 대신 전상현을 마운드에 올렸다. 전상현은 상대 선두타자에게 좌전 안타를 맞았다. 이어 최정원과 김주범을 뜬공으로 처리했다. 전상현은 이후 김범

수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김범수는 상대 박민우를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이닝을 마무리 지었다.

8회말에는 KIA가 썬기점을 얻었다. 선두타자 박재현이 우측을 안전히 가르는 2루타를 폭발시켰다. 박재현은 후속타자 김규성의 희생 번트로 3루에 진루했다. 이어 김도영은 고의 4루로 1루로 걸여졌다. 1사 1·3루 타석에 오른 카스트로는 희생플라이를 때려냈고, 박재현이 홈에 안착했다. 격차는 3-0으로 벌어졌다.

9회초에는 정혜영이 등판했다. 정혜영은 데이비스와 박건우, 서호철을 땅볼로 처리하면서 경기는 KIA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범호 감독은 경기 후 “올러의 호투가 팀 승리를 이끌었다. 연패 중이라 선수들 모두 심리적인 부담이 컸을 텐데 올러의 7이닝 호투가 다른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된 거 같다. 무사사구 경기를 펼친 부분도 칭찬해주고 싶다”면서 “올러의 뒤를 이어 전상현, 김범수, 정혜영으로 이어진 필승조도 기대대로 잘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 “전반적으로 아직 공격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득점 찬스에서 착실히 점수를 쌓은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다. 타격은 사이클이 있는 만큼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홈 개막 3연전 내내 만원 관중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는 만원 관중이 방문했다. 올 시즌 3번째 매진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자 진로·직업체험’ 운영

### 스포츠과학 분야 진로 직업 체험 등 실무 중심 교육 진행 전갑수 회장, “인재를 전문성·미래인재로 성장에 지원”

광주시체육회(회장 전갑수)는 지난 3일 광주스포츠과학원에서 스포츠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직업체험에 참여한 조선대학교 스포츠 전공 학생 57명은 광주스포츠과학센터 연구원과 컨디셔닝센터 트레이너, 건강운동관리사 등 현장 전문인력의 역할을 체험하며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스포츠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운동생리학 및 운동역학, 스포

츠 심리 및 컨디셔닝 전략 등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체력 측정과 스포츠 컨디셔닝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스포츠과학 지원이 이뤄지는 현장의 분위기를 체험하고 실무자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준연(조선대 1학년)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스포츠과학 분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졸업 후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현장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3일 광주스포츠과학원에서 스포츠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러한 전갑수 체육회장은 “앞으로도 스포츠과학 지원을 기반으로 청년 인재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지역 체육 인재

들이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KIA, 틴틴팅클워크...배우 김민·DAY6 원필 시구

### 7~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삼성과 3연전서

KIA타이거즈가 7일부터 9일까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삼성과의 주중 3연전을 틴틴팅클워크로 치른다.

이번 행사는 인기 SNS툰 틴틴팅클과의 협업으로 기획했다. 따뜻한 가족 이야기인 틴틴팅클의 내용에 맞춰 가족 단위 관람객을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 챔피언스필드 중앙출입구에 틴틴팅클 에어별론과 대형 현수막 포토존이 설치된다. 해당 포토존은 4월 한 달간 상시 휴경기 날 운영될 예정이다.

3연전 각각 틴틴데이, 부자(父子)데이, 행운데이 컨셉으로 이벤트가 마련되며, 릴레이 시구 행사도 이어진다. 이 기



김민 원필

간 시구자들은 틴틴팅클 레플리카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오른다.

7일 ‘틴틴데이’ 경기에는 틴틴팅클 등장 캐릭터인 꿀벌이 시구자로 나서 틴틴팅클워크의 시작을 알린다. 8일 ‘부자(父子)데이’ 경기는 영화 ‘왕과 사냥’에서 열연을 펼친 배우 김민이 시구를 맡는다. 9일 ‘행운데이’는 밴드 DAY6의 원필이 시구자로 나선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KLPGA 드림투어 1차전 윤혜림, 10년 만에 첫 우승

윤혜림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부 투어인 드림투어에서 첫 우승을 달성했다.

윤혜림은 지난 3일 전남 무안 컨트리클럽(파72·6천568야드)에서 열린 KLPGA 2026 무안CC·올포유 드림투어 1차전(총상금 7000만원) 2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기록, 최종 합계 9언더파 135타로 오경은(8언더파 136타)을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 1050만원을 거머쥐었다.

윤혜림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다시 한번 정규투어 입성을 바라보게 됐다. 윤혜림이 정규투어와 드림투어를 통틀어 우승한 건 2016년 7월 임희 후 처음이다.

그는 경기 후 “3년 전 학생들을 가르치는 레슨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다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며 “올 시즌엔 좋은 성적을 거둬 정규투어 시드권을 다시 확보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광주시청 역도 손현호·안시성, AG 국대 후보 선발

### 남자부 75kg급·여자부 61kg급 선정...6월 최종 명단 확정

광주시청 역도팀 손현호와 안시성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녀 역도 국가대표 후보 10인에 선발됐다.

대한역도연맹은 최근 제4차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아시안게임 출전 후보를 심의했다. 이날 연맹은 지난달 열린 전국 춘계역도경기대회 결과를 기준으로 명단을 선정했다.

이번 아시안게임 역도 종목은 남녀 각각 8체급으로 운영되며, 국가별 출전 쿼터는 남녀 최대 5명씩 10명으로 정해졌다. 연맹은 체급별 경쟁력을 고려해 후보를 확정했다.

남자부에서는 75kg급 손현호를 비롯해 85kg급 김성민(경상남도청), 95kg급 원종범(강원특별자치도청), 110kg급 진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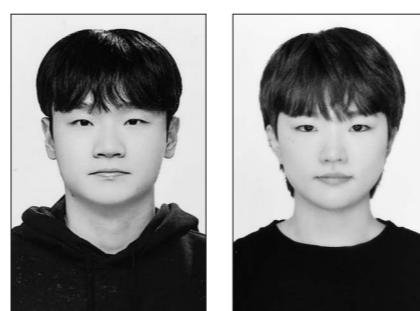
성(고양시청), 110kg 이상급 송영환(충청남도청)이 이름을 올렸다.

손현호는 앞서 전국춘계역도경기대회에서 인상 2위(150kg), 용상 1위(187kg), 합계 1위(337kg)를 기록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그는 한국 남자 역도를 이끌 차세대 스타다.

손현호는 2025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용상 3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인상 3위·용상 1위·합계 3위를 기록했다.

이어 문곡서상전배 역도경기대회에서는 인상·용상·합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손현호가 용상에서 들어 올린 205kg은 한국 신기록이다.

여자부에서는 61kg급 안시성을 포함해 49kg급 신재경(평택시청), 77kg급 김이



손현호 안시성

슬(수원시청), 86kg급 전희수(고양시청), 86kg 이상급 박혜경(고양시청)이 나선다.

안시성 역시 앞선 춘계대회에서 인상 2위(93kg), 용상 1위(115kg), 합계 1위(208kg)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아시안게임 최종 출전 선수는 오는 6월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FC 박성현 K리그 통합 ‘최연소’ 출전

### 강원전서 후반 교체 투입 16세 8개월 21일 프로 데뷔

프로축구 광주FC의 준프로 박성현(16)이 K리그 최연소 출전 기록을 작성했다.

박성현은 지난 4일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6라운드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교체 출전하며 16세 8개월 17일의 나이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는 구단 최연소 출전 기록이자, 2012년 승강제 도입 이후 K리그1과 K리그2를 통틀어 최연소 출전 기록이다.

출전 기록은 올해 안주안(서울이랜드FC)이 세운 16세 11개월 7일이다.

K리그1 기준 최연소 기록은 2024년 구단 최초 준프로인 김은호가 기록한 17세 4개월 17일이다. K리그 통산 최연소 출전 기록은 2002년 한동원(당시 안양LG)의 16세 25일이다.

박성현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감각적인 볼터치와 과감한 드리블 능력을 갖춘 유망주다.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과 전진이 가능한 플레이를 통해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이끌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 시즌 동계 훈련부터 프로 선수단과 함께 꾸준히 훈련을 소화하며 기량을 인정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만 16세의 어린 나이에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